

# 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 발간

### 전국 최초 15시간 내 약 230억 건 데이터전환 성공 시스템 전환 수행전략·시간 단축 노하우 등 수록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노력, 성과생생한 과정 등을 담아낸 책을 발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가 약 4개월의 편찬 작업 끝에 발간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는 지난해 7월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준비 단계부터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는 올해 1월 18일까지 약 7개월 간의 과정들을 인포그래픽,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해 알기 쉽고 생생하게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보시스템 전환 개요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 △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정보시스템 전환성과 및 시사점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시스템 전환시간 단축노하우, 대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장애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일인 1월 18일이 목요일 평일인 관계로, 전날 오후 6시부터

타 당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 이내 1,344개에 달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행정 코드와 주민등록, 지방세 등 약 230억 건에 달하는 모든 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전국적인 장애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어진 시간 내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이 필요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관계분야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군 부단체장들과 TF 팀을 구성했으며, 수차례 사전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전환작업을 마무리했다.

박현규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내 14개 시·군 등 각계각층의 숨은 노력과 도전정신, 추진성과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서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홍용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중 평일에 출범함에 따라 단시간 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가 약 4개월의 편찬 작업 끝에 발간했다.

주어졌지만,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과정에 참여하여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onbuk.go.kr)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시스템 전환뿐 아니라,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백서는 전북자치도의 추진과정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향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onbuk.go.kr)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힘찬 출발

### 전북특별자치도, 지난 21일 남원시 첫 출발 기념행사 전국 최대 규모 40회 운영 8,050명 농촌 어르신 혜택

전북자치도가 도내 마을 구석구석까지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농촌왕진버스의 첫 순행을 알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21일 남원시 금지면 누리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힘찬 첫 출발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축산식품부가 자카미(米)밥차 100명분을 제공하고 홍보영상 촬영 등을 진행했으며, 청춘봉사 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보였다.

전북은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사업'을 차질없이 시작하게 됐다.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해 양·한방 의료, 구강검진 및 검안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읍면 및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검진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비 40%, 농협중앙회 30% 지원을 받아 총 9억 6천만원을 투입하며, 전국 최대 규모인 총 40회를 운영해 8,050명의 농어촌 어르신에게 의료검진 혜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해 농촌 왕진버스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오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몸이 불편한데도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부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농촌 왕진버스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직접 찾아가면서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겨울철 자연재난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 군·소방·시군 등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특교세 1.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난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겨울철 자연재난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로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북자치도는 사전대비 실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재난 대응 조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으로 특교세 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상 이변으로 점차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시행,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민들 없는 사전대비와 대응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연말 연휴 기간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군산 선유도 지역에 최대 66cm의 기록적인 강설로 차량 정체 등 도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도 도로관리사업소,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군부대 등에서 인력, 장비 11대 및 열화갈음 55톤을 지원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방문객 및 산업단지 내 물류 운송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한발 빠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 전진기지를 추가 확보하고, 열화갈음 등 제설재 사전살포 및 자동 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한발 빠른 제설작업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왔다.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 내(~2023년

11월 14일) 한파 쉼터 전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보일러 등 난방기기 가동상태 점검 및 신속한 보수로 전체를 개선했으며,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했던 점도 주요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시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여름철 자연재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이어서 겨울철 자연재난 평가까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쁨이 2배가 됐다"며, "앞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도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전북 실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권고기준 초과면 재검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건축자재나 마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라돈 등 7개 항목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피부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쳐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

검사대상은 올해 입주 예정인 22개 신축 공동주택 중 5개 아파트로,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분해 지점을 선정해 검사하고, 권고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재검사할 계획이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으로 바닥재, 벽지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 인자를 파악하여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지역 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공모 선정

### 전북자치도·김제시, 6월부터 맞춤형 개선사업 제안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 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공모에 김제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등 6개 분야를 비교 분석해 매년 12월 안전 등급을 발표하고, 지역 안전지수의 개선과 지역 안전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등급, 위해통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1차 서면심사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관심도와 추진 의지, 기관 협업 가능성 등을 인터뷰해 대상 지자체를 결정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오는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전북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 안전 위험요인 분석 결과와 맞춤형 안전개선사업의 제안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2022년 4월), 해마다 종합 계획 수립, 중점 관리분야 사업 추진·점검, 시·군 및 유관기관 실무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과 함께 미흡한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안전지수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컨설팅 결과 공유회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문가 방문 자문,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 시·군 평가 등을 실시해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중요성 인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안전 취약 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분석해, 지역안전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